

# 잃어버린 마을



제주의 근현대사의 아픈 상처인 4·3은 웅기종기 모여 살던 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빼앗아 갔다. 마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곳은 그대로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봉성로**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977-6 ~ 애월읍 봉성리 3358-2(약 1.1km)

**어도봉길**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904 ~ 애월읍 봉성리 3946-1(약 1.7km)

**고드리왓길**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1231 ~ 애월읍 봉성리 611(약 0.9km)

**구물동길**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541-1 ~ 애월읍 금성리 768(약 1.7km)

**어림비로**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276-4 ~ 애월읍 어음리 산68-3(약 7.9km)

**녹근로**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30-1 ~ 애월읍 봉성리 산67(약 8.2km)

**방축길**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899 ~ 애월읍 봉성리 1133(약 1.5km)

**용다리길**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2306-1 ~ 애월읍 봉성리 1595-1(약 1.1km)

**도치들길** |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2470-1 ~ 애월읍 어음리 881-1(약 4.4km)

## 봉성로/어도봉길 | 어도봉

봉황의 형세가 성처럼 둘러있다는 뜻의 봉성리를 지나는 중심도로가 **봉성로**이다. 봉성리는 1950년대 까지 어도리(於道里)라고 불리던 마을이었다. 봉성리란 이름은 4·3사건 때 여러 마을이 사라지는 아픔을 겪은 후 마을을 다시 재건하면서 마을의 단합을 위해 변경한 이름이다.

**어도봉길**은 어도봉을 지나는 길이다. 도노미오름 이라고도 불리던 어도봉은 그리 높지 않아 30분 정도면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다. 오름 경사면에는 나무들이 뺨뺨하게 자라고 있지만 정상에 이르면 넓은 잔디밭이 펼쳐진 분화구를 만난다. 어도봉에도 봉수대가 있어서 주변의 오름들과 소식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봉성리

## 고드리왓길/구물동길 | 잃어버린 마을

**고드리왓길**은 봉성리 옛 고유지명을 반영한 도로이다. 4·3사건 당시 중산간마을들은 낮에는 토벌대에, 밤에는 무장대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었다. 더구나 중산간지대를 허가없이 돌아다니는 자는 폭도로 규정해 발포하겠다는 군대의 발표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 둘씩 해안가로 이끌었다. 그리고 무장대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중산간 마을 대부분을 불태워 버렸다. 이 초토화작전으로 제주 중산간의 많은 마을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잃어버린 마을 탐방로

봉성리 역시 이 화마를 피해가지 못했는데 중산간의 자리동·마전동·고드리왓·상수모름·머뎡이왓 등 6개 마을이 불에 타면서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다. 옛 지명에서 유래한 **고드리왓길**은 이때 사라진 고드리왓 마을을 의미한다. 4·3사건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 사람들은 마을을 재건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 개중에는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은 마을도 있지만 영영 잃어버린 마을로 남게 된 곳도 있다.

봉성리에서는 잃어버린 마을 탐방로를 조성해서 사라진 옛 마을들을 기억하며 흔적을 더듬어보고 있다.

**구몰동길**은 구몰동 마을이 있던 곳을 지나는 길이다. 거북이가 진흙 속에서 나오는 형태라는 의미에서 구머리로 부르다가 일제강점기부터 구몰동으로 불려왔다. 어도봉 동쪽의 구몰동은 중산간마을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지만 이 마을 역시 4·3사건 때 화를 입은 마을이었다. 제주도에서는 4·3사건 때 사라진 마을이 있던 자리에 비석을 세우고 그 유래를 기록해 과거의 흔적을 되새기고 있다.

### 어림비로 | 빌레못동굴

어음리는 봉성리 동쪽에 있는 전형적인 중산간마을이다. **어림비로**는 어음리의 옛 이름인 어림비를 반영한 이름이다. 어음리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빌레못굴이 있다. 이 동굴은 총 길이가 10km가 넘어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긴 용암동굴이자 미로형 동굴이다. 동굴 안에서는 현재 제주에 남아있지 않은 황곰의 화석이 발견되면서 빙하기 시대에 제주와 육지가 이어져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빌레못굴은 4·3사건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동굴에 숨어있던 2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토벌대에 발각되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있었다. 개중에는 동굴 깊숙이 숨어 다행히 발각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너무 깊이가 들어가 밖으로 나오지 못해 굶어 죽은 안타까운 사연도 전한다.

### 녹근로 | 새별오름



새별오름

**녹근로**는 노를 꼬듯이 꼬불꼬불한 지형의 언덕을 부르던 노끈머리의 지명을 반영한 이름이다. 봉성리에서 녹근로를 따라 평화로를 향해 가다보면 들불축제로 유명한 새별오름을 만난다. 새별오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다. 새별오름 주변은 고려시대 목호군과 최영군과의 일대 격전이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최영군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승기를 잡는다. 목호들은 이 전투의 패배로 세력이 급격히 줄어 서귀포 지역으로 후퇴해야 했

다. 과거 군사들의 함성소리로 가득했을 이곳은 넓게 펼쳐진 초원과 곳곳에 솟은 오름 사이로 말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경치를 보여주고 있다. 매년 봄에 개최되는 들불축제 때는 새별오름에 불을 놓는 이벤트를 열어 한 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 방축길 / 용다리길 | 방축못과 용다리

녹근로에서 갈라지는 작은 길인 **방축길**은 방축샘과 방축못이 있던 곳에서 부여한 이름이다. 예전에 이 마을 사람들은 사람이 먹는 물은 샘이라 부르고, 소와 말을 먹이던 물은 못이라 했다고 한다. 그래서 방축샘은 마전동과 고드리왓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했고, 방축못은 가축들을 먹이거나 빨래와 목욕을 했다고 전한다. 봉성리에는 여러 샘이 있었음에도 식수난에 시달렸다. 이후 어승생 수원지와 연결되고, 지하수가 개발되면서 비로소 물 걱정을 덜게 되었다. 녹근로에서 갈라지는 또 다른 작은 길인 **용다리길** 역시 이 부근의 옛 지명을 반영한 이름이다. 제주에서는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용다리라고 불렀는데, 이 주변에 용다리 소유의 밭이 있어 이 일대를 용다리라고 했다. 제주는 한센병과 인연이 있는 곳이다. 조선 세종 때 제주에 부임한 기건목사는 한센병 환자들이 전염의 위험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제주목과 정의현, 대정현에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 구질막을 설치하였다. 하늘이 내린 별이라고 여겨 아무도 인간대접을 해주지 않았던 한센병 환자들에게 구질막은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다. 그 덕분에 수십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한센병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한다.

## 도치돌길 | 도치돌

**도치돌길**은 남읍리와 어음리 경계를 따라 이어지는 길이다. 이 길은 어음리에 있는 커다란 바위인 도치돌의 이름을 딴 것이다. 도치돌길과 천덕로가 만나는 지점 인근에는 도치돌소공원 있다. 이곳에 있는 높이가 7m에 이르는 커다란 바위가 도치돌이다. 뽕족하게 솟아있는 이 바위는 마치 누군가 돌을 칼처럼 갈아서 세워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인간세계에 장수를 보내며 천하를 평정하라고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한 장수가 던진 칼이 도치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또 유배 온 장수가 도치돌을 보면서 절치부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사람들은 도치돌을 보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한다. 비가 많이 내려 물이 흘러갈 때 도치돌 위에 있는 덩불이 쓸려 내려가면 흉년이 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